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3

심각한 자기부정
—<대륙>을 통해서 본 한설야의 정화(淨化) 미학—

劉 惠 瑩*

요 약

한설야의 장편소설 〈대륙〉은 일제가 만주 이주, 개척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배경 아래 창작되었고 일본인 및 조선인의 만주 이주, 개척을 주된 내용으로 했다. 이 소설에서 한설야는 '무구(無垢)함'을 일종의 긍정적인 이미지로 제시함으로써 식민지 만주 또는 그 주체에 대한 이상적인 설계도를 내놓았다. 그것은 민족의식이 불식되고 민족적 경계선이 무너진 민족무화의 세계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무'의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거친 정화(淨化) 과정에는 반드시 죽음 기호가 수반된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한설야의 이상이 심각한 자기부정을 내포했던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사실은 〈대륙〉의 해체적인 구성을 불러일으켜 심각한 민족적 모순, 제국의 헤게모니의 일부로 수렴된 하층 이민 등 일련의 파탄으로 구체화되었다. 심각한 자기부정을 드러내는 한설야의 정화 미학은 1939년이라는 시점에 조선의 식민지문제, 계급문제에 대한 그의 비판적 시각을 말해준다.

주제어: 한설야, <대륙>, 정화(淨化), 이민, 자기부정

* 山東大學(威海) 韓國學院 전임 강사

목차

1. 들어가며
2. 무구한 '처녀지'——민족 무화의 세계
3. 정화, 죽음 기호의 등장, 그리고 자기부정
4. 스스로 해체된 이상향
5. 나오며

1. 들어가며

한설야의 장편소설 〈대륙〉은 1939년 6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일주일에 한 회 씩 『국민신보』에 연재되었다. 총 17회로 구성된 이 소설은 중일전쟁이 전면적으로 발발했던 배경 아래 창작되었다. 조선과 중국 동북 지역을 발판으로 삼아 중국 전역 진출을 도모한 일제는 한편으로는 식민지 조선을 동화(同化)하고자 하는 '내선일체' 정책을 일련의 조치로 현실화했고,[1]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일본인, 조선인 이주를 주도, 장려했다.

일본인의 만주 이주는 러일전쟁 이후 이미 시작되었지만 만주사변 이전까지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2] 1932년 1월, 일본 관동군 통치부에서 주최한 '만몽의 법제·경제 정책 자문회(滿蒙に於ける

1) '내선일체'는 사실상 '선만일여(鮮滿一如)'의 연장선상에 있어 1936년 8월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후 이슈화되기 시작하며,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 발발 후에는 일본어 보급, 창씨개명, 종교·풍습의 통합, 지원병제 내지 징병제의 실시 등 일련의 방침으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劉惠瑩,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중·단편소설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8월, 156면.

2) 沈海濤·衣保中·王胜今, 「論日本對中國東北移民的侵略本質」,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54卷 第3期, 2014年 5月, 7면; 鄒桂芹, 「"九一八"事變後日本對中國東北的移民侵略」, 『長春教育學院學報』 第19卷 第2期, 2003年 6月, 28면.

法制及び経濟政策諮問會議)'에 만주 이민 계획이 본격적으로 제시되었다.[3] 1936년 7월에 일본 척무성에서 관동군이 제정한 '만주 농업 이민 백만 호 이주 계획(滿洲農業移民百万戶移住計畫)'을 바탕으로 '20년 백만 호 송출 계획(二十ケ年百万戶送出計畫)'을 세웠다. 1937년부터 앞으로 20년 동안 백만 호 500만 명을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민할 것을 내용으로 한 이 계획은 히로다(廣田) 내각에 의해 칠대 국책(七大國策) 중 하나로 정해졌다.[4] 1939년 12월, 일제는 위만주국 정부와 '만주 개척정책 기본요강(滿洲開拓政策基本要綱)'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1945년 8월까지 일본의 만주 이민은 10만 6,000호, 31만 8,000 명에 이르렀다.[5]

조선인 강제이주는 일본의 만주 이주의 보조적 수단으로 동원되었다. 1927년에 내각총리대신 다나카 기이치(田中義一)는 그의 상주문에서 '만몽에 대한 정책'을 제출하면서 '조선이민의 장려 및 보호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조선인에 대한 문제를 언급했다. 조선 이민을 장려함으로써 중국 침략을 추진하려는 의도를 극명하게 드러냈다.[6] 1932년 1월, '만철' 지방부 농무과(農務課)에서 조선인에 대한 만주 이주 강령을 제정하여 20년 동안 매년 5,000 호씩 수송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7] 위만주국이 세워진 후, 조선총독부는 1932년 4월에 '만선농사주식회사 설립안'을, 1933년에 '조선인이민정책대강'을 작성하여 집단적 강제이주를 계획, 추진했다.[8] 1936년

3) 淺田喬二, 「拓務省の滿州農業移民計畫 (試驗移民期) 」, 『駒澤大學經濟學部研究紀要』 32卷, 1974年 3月, 91면.
4) 山畑翔平, 「昭和戰中期における滿洲移民奬勵施策の一考察——移民宣伝誌を通じてみた滿洲イメージとその変容」, 『政治學研究』 41号, 2009年 5月, 139면.
5) 馬平安, 『近代東北移民研究』, 齊魯書社, 2009年, 92면.
6) 유필규, 「滿洲國시기 韓人의 강제이주와 集團部落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년, 20~21면.
7) 依田熹家 著, 卞立强 等 譯, 『日本帝國主義的本質及其對中國的侵略』,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3年, 294면.
8) 한석정, 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204면;

8월 이후, 조선인 이주는 '만주 농업 이민 백만 호 이주 계획'의 일부로 실시되었고[9] 1941년 4월 '만선척식주식회사'가 만주척식회사에 통합된 후, 조선인 이주에 대한 관리는 일본인 이주에 대한 그것과 일원화되었다.[10] 1937년부터 1944년까지 중국 동북 지역으로 이주 온 조선인은 4만 1345 호, 14만 9846명이었다.[11]

〈대륙〉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만주 이주, 개척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소설로 위와 같은 시대적 배경을 충분히 염두에 두면서 창작되었음에 틀림없다. 소설 내적 시간은 1932년 이른 봄부터 여름까지이다. 하야시 카즈오(林一夫)와 그의 친구 오오야마 히로시(大山博)의 만주 개척 이야기 및 히로시와 중국 여성 조마리(趙瑪麗) 사이의 연애 이야기가 동시에 전개된다. 일본인 하야시와 히로시는 만주의 오지에 와서 '자유이민촌'을 지어 금광 개발과 농지 개척에 종사한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현지의 민간 유력자인 조노인의 도움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히로시의 약혼자인 고토 유키코(後藤雪子)의 숙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히로시는 조노인의 딸 마리와 사랑에 빠져 유키코와의 정략결혼을 거부하게 된다. 마리가 중국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 사랑이 오오야마 집안과 고토 집안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침에도 불구하고 히로시의 결심은 굳다. 그러나 마리는 히로시의 사랑이 과연 일본인의 민족적 편견을 이겨낼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고민한 나머지 그녀는 히로시를 떠나기로 결심한다. 편지만 남기고 떠나 버린 마리를 찾기 위해 히로시는 바로 신징(新京)으로 향하게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도피한 것으로 오해한 히로시의

朴仁哲, 「朝鮮人'滿州'移民のライフヒストリー (生活史) に関する研究－移民体験者たちへのインタビューを手掛かりに」, 北海道大學博士學位論文, 2015年, 18면.

9) 馬平安, 앞의 책, 120~121면.

10) 馬平安, 위의 책, 121면; 朴仁哲, 앞의 글, 20면.

11) 馬平安, 위의 책, 122면.

아버지 오오야마 겐지는 사업 자금을 우려해 예금처인 룽징(龍井)에 가다가 마적에게 납치된다. 아버지를 구하러 나선 히로시도 결국 붙잡힌다. 다행히 마리 부녀는 마적의 두목과 친분이 있어 오오야마 부자를 성공적으로 구출한다. 얼마 되지 않아 히로시는 다시 마적의 습격에서 치명상을 입게 된다. 마리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유키코는 히로시를 열심히 간호해 줄 뿐 아니라 히로시와 마리의 결혼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소설은 퇴원한 히로시가 마리와 같이 마적 습격으로 죽은 사람들의 묘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 줄거리는 일견 매우 '국책적'인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이 소설에 대해서는 조선작가가 이미 일제의 시선을 내면화했다거나 일제의 시선과 겹쳐 있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배주영과 정종현, 한설옥(韓雪玉)은 한설야가 일본과 조선이 가진 제국과 식민지라는 서열적 시선을 만주에 투영시킴으로써 '만주'라는 공간에서 "제국적 질서 속에서의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이나 "침략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리라는 기대"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12] 서경석에 따르면 한설야는 '대륙'을 "희망의 공간"으로 형상화하며 "대륙의 가능성"을 확고히 드러내 보이는 데 일본의 시선과 겹쳐 있다고 한다.[13] 윤대석 또한 조선작가가 제국의 동아신질서론과 어긋나는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비판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 소설이 동아신질서론에 깊이 개입되어 그것과 사고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항'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지적한다.[14] 김재용만 〈대륙〉을

12) 배주영,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韓國學報』 제29권 제3호, 일지사, 2003년, 56~57면;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년, 134~144면; 韓雪玉, 「僞滿洲國時期中韓作品中的東北形象比較」,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年, 42~52면.

13)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제86호, 한국어문학회, 2004년 12월, 356면; 서경석, 「카프 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년 12월, 24면.

14)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년, 219면.

일제의 '오족협화'를 거꾸로 이용하여 그 식민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이를 넘어서 진정한 국제주의를 보여주는 우회적인 글쓰기라고 호명한다.15)

식민지 조선 작가가 식민주체로 변신했다든가 오족협화의 허위를 드러내 보였다든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제국-식민지라는 틀을 적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을 제국과 식민지의 관계, 즉 내선일체 문제를 검토하는 소설로 상정한 것이다. 필자는 한설야가 이 소설에서 민족을 무화(無化)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그의 민족 논의가 계급문제와 교차되어 전개되었다고 지적하고 싶다. 민족의 무화는 작가의 계급적 시각 때문에 가능했으며 내선일체의 틀을 넘어섬으로써 내선일체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드러냈다.

2. 무구한 '처녀지'——민족 무화의 세계

〈대륙〉이 연재되기 직전에 1939년 5월 28일자 『국민신보』에는 편집부의 연재 예고와 함께 한설야의 '저자의 말'이 실렸다.

> (중략)
> 따라서 만주의 오지——아직 혼란스럽고 더러운 상태에 있는 그 오지——의 공기를 자기의 생활에 어울리도록 환기시켜 신흥 만주에서 사는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나의 연래의 지론이며 소설 <대륙>으로 구상화되었다.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구의 끝에서 불쑥 튀어나온 신천지에 인간 성격의 개조라는 것이 있다. 참으로 대륙경영에 참획하는 새로운 인간형을 창정해 보고 싶었던 것이다.
> 이런 의도로 나는 장편 <대륙>을 썼다.16)

15)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년, 239면.

한설야가 이 소설을 이상적인 "신흥 만주"나 "새로운 인간형"을 구상화한 결과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이 소설을 통해 식민지 만주 또는 그 주체에 대한 한설야의 이상적인 설계도를 엿볼 수 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이상적인 인간형——민족의식이 씻어진 사람

수많은 등장인물들 중에 누가 "새로운 인간형"으로 제시되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태어난" 유키코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a) 유키코는 다시 태어난 겸허하고 무구한 표정이었다.[17]
> (b) 『(중략) 만주에 온 지 반년도 채 안 되는 사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네. 질투나 제멋대로 하는 성질이나——부유한 집안의 그런 불순물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스스로 깨달았을까? 스스로 깨끗이 씻어 버린 것 같네.』[18]
> (c) 유키코다운 흔적이 전연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편지 전체는 역시 다시 태어난 청순한 기분으로 가득 차 있었다.[19]
> ——밑줄 친 부분은 인용자

밑줄 친 부분을 보면 유키코의 갱생을 묘사하는 데 저자가 반복 사용하는 것은 "불순물"을 "깨끗이 씻어 버린"다는 이미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 태어난" 유키코를 그리는 데 그 "무구"함에 초점을 맞춘다. 오오야마 히로시에 대한 묘사도 같은 맥락에 있다.

히로시에 대해서 저자는 "순진한 남자(純な男)", "서생같은 오오야

16) 韓雪野, 〈作者の言葉〉, 『國民新報』, 1939년 5월 28일, 30면.
17) 韓雪野, 〈大陸【16回】〉, 『國民新報』, 1939년 9월 17일, 14면.
18) 韓雪野, 〈大陸【17回】〉, 『國民新報』, 1939년 9월 24일, 13면.
19) 韓雪野, 위와 같음, 14면.

마(書生ツぽい大山)", "아직 인생 초년병인 순진한 오오야마(未だ人生初年兵のうぶうぶしい大山)", "순진함(無邪氣)" 등 일련의 표현으로 특히 그 순진무구함을 강조한다. 이 소설에서 '무구'함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등장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히로시가 바로 '새로운 인간형'임을 알 수 있다.

'새로운 인간형'의 특징, 즉 '무구'함의 함의를 파악하기 위해 다시 유키코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처음 등장할 때 유키코는 외모적인 단점이나 성격적인 단점도 다분히 가지고 있지만 특히 만주나 만주 사람에 대한 민족적 편견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문제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히로시를 도쿄로 소환하는 한편, 만주는 사람을 거칠고 천하게 만드는 "마적의 본고장"으로 폄하한다. 마리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저런 하찮은 만주 여자 따위……"라고 경멸하며 마리에 대한 히로시의 사랑에 대해 "저런 짱꼴로 여자에게 홀린다니 꼴사나워 못 보겠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한다. 유키코의 이런 시선은 사실상 고토 사장이나 오오야마 겐지를 비롯한 구세대 식민주의자들의 "도국(島國) 쇼비니즘"적인 사고방식을 답습한 것이다.

고토 사장이나 오오야마 겐지는 만주나 만주 여성을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여긴다. 그들은 군수용품 판매나 아편 재배를 만주에서의 사업으로 삼는 투기자들이며 만주 여성을 엑조틱한 시선으로 주시하고 노리개로 취급한다. 그것을 저자는 처녀지나 처녀의 무구함을 파괴하는 "검은 선(黑い一線)"으로 호명한다.[20] 고토 사장을 묘사하는 데 풍자와 비판을 감추려고 하지 않는 것은 도국 쇼비니즘에 대한 저자의 부정적인 입장을 극명하게 드러

20) 韓雪野, 〈大陸【第五回】〉, 『國民新報』, 1939년 7월 2일, 29면. 제9회에서 고토 사장의 폭행을 당할 뻔한 마리를 묘사하는 데 저자가 사용하는 "뭔가 불순한 것(何か不純なもの)"이라든가 "불순한 느낌(不純な感じ)"이라든가 등의 표현도 같은 맥락에 있다. 韓雪野, 〈大陸【第九回】〉, 『國民新報』, 1939년 7월 30일, 28면.

낸다.

변화를 거친 유키코는 성격상의 단점을 고친다기보다는 마리나 만주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버린다. 그녀는 급한 전보로 히로시가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마리에게 알려주고 마리를 병원까지 불러 나온다. 마리와 히로시의 사랑이 인간애가 민족 간의 경계선을 넘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인정해 준다. 마리를 대등하게 대해 주며 연꽃을 선물하는 중국 풍습(일본에서는 금기시됨)까지 거리낌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가난한 식민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주에서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결심을 밝힌다. 이로 보건대 유키코의 변화는 특히 식민지의 타민족에 대한 대등한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히로시의 '무구'함 또한 '민족'을 중심으로 서술된다. 처음에는 만주 또는 마리에게 보내는 히로시의 시선에는 "엑조틱한 정서"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처음부터 마리는 이민족 여성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성격으로 비쳐지며 유키코와 대등한 결혼대상으로 인식된다. 히로시가 '민족'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한 것은 마리가 고토 사장의 폭행을 당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적인 고려로 인해 그에게 울분을 털어놓고 싶지 않을 때부터다.

> "오오야마 씨랑 아버님이랑 사장님의 사이 말이야. 우리보다는 훨씬 깊은 거지——무조건이라든가 절대적이라든가 해도 좋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장님의 일은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라고 생각한 대로 얘기했다.
>
> "깊은 사이라니. 혹시 경제적인——사업관계 말입니까"
>
> "아닙니다"
>
> "그러면?"
>
> "글쎄, 뭐랄까? 하지만, 만약에 제가 일본인이라면, 아니면 오오야마 씨는 만주 사람이라면. 그렇다면 제가 오오야마 씨한

테 혼나기 전에 모두 말해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더 얘기하고 싶었겠지요"

오오야마는 문득 짐작이 가서 안색이 약간 변했다.

"그건 마리 씨의 편견이에요"

라고 그는 엄숙하고도 온화하게 위로하듯 말했다.

"그런지도 몰라요. 제 입장으로는 그건 느껴지지만 오오야마 씨의 입장으로는 그렇지 않겠지요. 하지만 오오야마 씨는 다만 제 편견이라고 깨끗이 제쳐둘 수 있겠지만 저로서는 여하튼 그렇게 쉽게 제 편견이라고 할 순 없어요"

"하지만……"

오오야마는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고 말았다. 그는 이 순간만큼 일본인 또는 만주인을 뚜렷하게 인식한 적은 없다. 마리의 생각을 다만 "편견"이라고 치워 놓았지만 역시 자신의 생각은 얕았다. 인간의 마음과 마음이 하나로 되어가는 사랑의 과정에서도 민족이라는 관념이 뿌리깊이 그리고 세게 작용되고 있는 사실을 그는 처음으로 피부로 느꼈다.

자신이 일찍부터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오오야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마리의 말도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진리처럼 생각되었다. 일본인은 자칫하면 민족적인 우월감 때문에 정당한 인간적인 사고를 잊어버리게 마련이다. 오오야마 자신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21]

위 인용문에서 마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히로시에게 '민족'을 제시해 준다. 하나는 민족 간의 경계선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인의 자민족중심적인 사고방식이다. 히로시와 달리 처음부터 민족의식이 강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히로시와의 사랑을 인식해온 마리는 인간적인 남녀지애가 "무조건이"며 "절대적"인 '민족'을 이길 힘을 가지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 일본인의 자민족중심적인 사고방식 때문이라고 완곡적으로 지적한다.

민족을 의식하지 못하던 히로시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민족'에 눈뜨

21) 韓雪野, 〈大陸【第九回】〉, 『國民新報』, 1939년 7월 30일, 29면.

게 된다. “마리와는 유키코와도 다릅니다. 단순히 사랑이라든가 아내라든가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라면서 그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마리와의 사랑을 새삼스럽게 재고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결합은 사랑 이상의 무엇을 낳아야 합니다”라고 이 사랑의 상징적인 의미를 역설한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의식적으로 자민족중심주의를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만주어를 열심히 배우고 만주 옷을 칭찬하고 도쿄로 가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며 만주에서 살겠다는 것이 모두 이런 맥락에 있는데 저자는 마리의 입을 빌려 “히로시는 사랑을 위해서 싸우고 민족적인 편견과도 싸웠다. 그야말로 대륙에 대한 큰 애착 속에서 자신과의 사랑을 살리려고 했고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이번엔 대륙에 대한 애착의 밀도를 크게 했다.”라고 이 점을 밝힌다.

제국-식민지의 기존 질서를 깨뜨린다는 것은 정치적인 현실성을 가지고 있다. 일본-만주의 경우는 일본-조선에도 적용될 수 있고 “왜 만주사람은 안됩니까? 만주사람이라고 경멸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라든가 “이 세상은 왜 약자만 괴롭히는가?”라든가 하는 일본인 인물의 발화는 일본인과 만주인의 가면 뒤에 숨어 있는 조선인 작가의 민족차별 비판으로 읽히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과연 히로시의 ‘무구’함은 제국 쪽의 자민족중심주의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그치는가? 〈대륙〉은 과연 조선인 작가가 일본인과 만주인의 연애 이야기를 빌려 내선일체의 바람직한 형태를 검토하는 이야기인가? 정 그렇다면 히로시와 마리의 연애 이야기는 마리가 그러듯이 굳이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에 대한 사랑만으로 이미 그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22] 그러나 소설은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일부러 히로시에게 다시 한 번 죽음의 위

22)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이광수의 〈마음이 만나서야말로(心相觸れてこそ)〉(『녹기』, 1940.3~7)는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협을 씌움으로써 두 사람을 사실상의 결합까지 끌어간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히로시가 다시 한 번 죽을 위험에 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그의 피로써만 마리의 민족적 콤플렉스를 씻어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히로시가 마적에게 붙잡혀간 것은 마리에게는 도와줄 까 말 까라는 문제로 다가왔을 뿐 민족적 감정을 씻어 버릴 힘을 가지지 못한다. 히로시의 치명상을 알고서야 그녀는 비로소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불행 앞에 있다 보니 기분이 묘하게 차분해졌다. 원망 따위는 어느 쪽에도 없었다."라는 '무'의 상태에 이르러 일본인들과 같이 히로시의 병실을 민족적 경계선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로 만든다.

일본인에게 자민족중심주의의 제거를 요구하는 동시에 식민지인에게 민족적 콤플렉스의 제거를 재촉하는 것을 보면 이른바 '무구'함은 민족차별의 비판으로 그치지 않고 민족의식이 씻어진다는 국제성을 의미한다. 일찍이 〈舞踊 使節 崔承喜에게 보내는 書〉라는 글에서 한설야는 문화와 민족이 국제성·세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今日은 민족과 文化 속에서 이 국제性·世界性을 全然 追放하랴고 하니 이것은 말하자면 停滯에의 踏步요 窮極에 있어서 死滅에의 逆行이 된다 할 것이다"[23]라고 일제 동화 정책 아래 조선의 문화적·민족적 현실을 부정한 바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는 일련의 글을 발표하여 중국 대륙에 보내고 있는 서양·일본·조선의 엑조틱한 시선을 비판했다.[24] '저자의 말'을 통해 소설 〈대륙〉이 바로 이런 비판의식을 바탕으로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균질적인 '민족' 개념은 '내지-외지-식민지'라는 불균질한 제국적 질서를 해체시켰는가 하면 '대륙'까지 확대한 작가의 시선은 그가 이미 내선일체의 틀을

23) 韓雪野, 〈舞踊 使節 崔承喜에게 보내는 書〉, 『四海公論』, 1938.7, 156면.
24) 대표적인 글로는 〈舞踊 使節 崔承喜에게 보내는 書〉(『四海公論』, 1938.7), 〈天壇〉(『人文評論』, 1940.11), 〈大陸文學 等〉(『京城日報』, 1940.8.2-4) 등을 꼽을 수 있다.

넘어섰음을 말해준다.

다음에 '자유이민촌'을 통해 한설야의 이상적인 민족 동서(同棲)를 살펴보겠다.

2) 이상적인 이민공동체——민족성이 지워진 '자유이민촌'

이민공동체에 대해서 하야시가 특별히 강조한 점은 "군대나 다른 권력"에 의탁하지 않고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독립적 민간적인 성격이다. 다시 말해 일제의 국가적 권력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공동체를 기획한 것이다. 이런 "자유이민의 정신"은 일제의 강제이민 국책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일종의 '저항'으로 읽히지만, 장쉐량(張學良), 마잔산(馬占山)을 비롯한 중국의 항일 역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항일'이라기보다는 '민족' 개념의 정치적인 함의를 추방하려는 태도를 드러냈다고 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민족성이 지워진 것은 이와 관련되어 있다. 중국인이 조선옷을 입고 조선인으로 변장해서 일본군의 가해를 피하는 반복된 내용을 통해 민족적 신분과 민족 복장 사이의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다면 젊은 세대가 민족 복장을 마음대로 갈아입는 것은 민족적 경계선을 넘나드는 자유로움을 드러내 보인다.

(a) "근데 지나, 아니 만주옷도 나쁘진 않은데"
라고 하면서 하야시는 마리를 보고 빙그레 웃었다.
마스코는 어쩐지 갑자기 마음이 답답해졌다.
"나도 만주옷 입어 볼까"
라고 마스코는 하야시에게 허락을 구하는 듯한 눈길을 보내다가 곧바로 오빠를 보고
"네? 오빠가 사 줄 거야?"
"응, 응, 사 주고말고"[25]

(b) 쓰하이(四海)의 말대로 왕쾌투웨이(王快腿)에게 줄 선물로 중절모자며 양말이며 작업화를 사고 히로시는 만주옷을 새로 맞춰서 껴입었다.[26]

(a)에서 하야시에게 호감을 느끼는 일본 여성 마스코는 만주옷에 대한 하야시의 칭찬을 듣고 질투하는 마음에 자기도 만주옷을 입겠다고 선언한다. 그녀의 오빠 히로시도 그것을 쾌락한다. 만주옷에 담겨진 민족적인 함의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은 매우 모호한 민족적인 경계선을 암시한다. 반면에 (b)에서 민족적인 기호로서의 만주옷의 기능이 강조된다.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 직접 마적을 찾아간 히로시는 만주옷을 입음으로써 만주인과의 민족적 거리감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한다. 여기서도 일본인의 만주옷은 넘나들 수 있는 민족적 경계선을 암시한다.

언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일본인 하야시의 유창한 중국어는 조노인에게 "그 나라 사람이 되어 보려는" 자세로 들리며 조선어는 귀향을 열망하는 조선인들에게 조선적인 기호로 인식된다. 히로시는 중국인 여성 마리와의 거리감을 지우기 위해 중국어를 열심히 배우게 된다. 사실은 마리까지 일본에서 대학교를 나오고 방에 일문신문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젊은 세대 사이에서 무슨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짐작하기가 어렵다. 무너진 언어적 장벽은 매우 불투명한 민족적 경계선을 암시한다.

특히 하야시와 마리의 복합적인 민족성은 역으로 민족성을 지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하야시는 성씨부터 일종의 국제성을 보인다. '임(林)'씨는 중국에서는 '린', 조선에서는 '임/림', 일본에서는 '하야시'라고 각각 다르게 발음되지만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하야시는 국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젖먹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만주에 건너

25) 韓雪野, 〈大陸【第五回】〉, 『國民新報』, 1939년 7월 2일, 28면.
26) 韓雪野, 〈大陸【第十二回】〉, 『國民新報』, 1939년 8월 20일, 13면.

온다. 그의 아버지는 조선인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조선옷에다가 상투머리를 하고 긴 조선담뱃대를 물며 가난한 조선인 백성들과 어울린다. 하야시 본인은 만주인, 조선인과 오래 같이 살다 보니 중국어와 조선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할 수 있다. 그는 만주를 일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실상의 고향"으로 호명하며 만주에 뼈를 묻겠다고 각오한다. "야생적"인 생김새는 만주가 이미 그의 신체의 일부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런 하야시는 혈통적으로는 일본적이고 문화적으로는 조선적이며 신체적으로는 만주적이라는 매우 복합적인 민족성을 보인다.

마리는 조노인의 딸, 그러니까 중국인 여성으로 등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부터 일종의 유럽적인 분위기를 풍긴다. 무용에 대한 천부적인 재능은 그녀에게 백계러시아적인 요소를 부여한다. 이는 그녀가 첩보활동의 중심지이자 모던적인 분위기로 충만한 댄스홀의 댄서가 되는 대목에 이르러 더욱 분명해진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국의 유서 깊은 집안의 딸로서 그렇게 쉽게 댄서가 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라를 잃고 하얼빈(哈爾濱), 창춘(長春), 션양(瀋陽) 등 각지를 전전한 백계 러시아인 여성들이 댄서로 전락되어 버린 경우가 많다.[27] "베이징에서 고향으로, 고향에서 펑톈(奉天)으로, 펑톈에서 신징으로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가끔은 여관에서, 가끔은 댄스홀에서 고생을 함께 해 오고 곧바로 주인한테 버림받을 일용품들을 보면서 역시 수심에 잠겼다."라는 마리에

27) '백계 러시아인'은 소비에트 정권을 반대하는 바람에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에서 쫓아낸 사람들을 가리킨다. 통계에 따르면 1919년부터 1937년까지 중국 동북지역에 온 백계 러시아인은 약 76, 404명이었다. (房建昌, 「僞滿洲國時期的白俄」, 『黑龍江社會科學』, 1997年 12月, 67면) 그 중 많은 백계 러시아 여성들이 음악, 무용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경제적인 궁지에 하얼빈, 션양, 창춘,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댄서가 된 경우가 많았다. 많은 댄서들은 첩보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王俊彥, 『白俄中國大逃亡紀實』, 中國文史出版社, 2002年, 214~216면.

대한 서술 또한 백계 러시아인 여성들의 디아스포라적인 이미지와 맞물려 있다.

하야시와 마리의 복합적인 민족성은 이민공동체의 전반적인 성격과도 겹친다. 이민공동체는 일본인 하야시와 히로시의 주선으로 지어졌지만 따져보면 조선인 이성천(李聖天)의 권유를 받는 결과이며 전 과정에 걸쳐 이성천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조씨 부녀의 도움은 공동체에 중국적인 요소를 주입한다. 복합적인 민족성은 다른 방향에서 지워진 민족성을 말한다.

한중일의 구분 없이 "똑같이 대륙의 불을 켜 줄 한 방울의 기름"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견 일제의 오족협화(五族協和) 슬로건에 호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제의 국가적 권력과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려는 자세, 그리고 '대륙'으로 향하는 종국적인 방향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귀국의 사람이든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살아가려는 인간적인 본능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말이 암시하듯이 평등한 생존권을 내세움으로써 계급문제와 연결된다. 즉 "다분히 적색을 띠고 있는" 것이다.

'공산당 선언'에서 노동자의 국제적 단결을 호소했다. 이에 계급문학에서 노동자 계급의 국제성을 주장했다. '일본인'이 침략자라는 민족적 신분으로서가 아니라 '일본인 노동자'라는 계급적인 기호로 등장한 현상은 〈대륙〉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황혼〉 이후 대체로 한설야의 창작이 계급문학의 이념에서 벗어났다고 선행연구에서 주장해 왔지만 이는 지나치게 작가를 단순화시켰다. 중국의 경우를 보면, 1934~1938년 무렵, 일제의 침략이 심각해져감에 따라 계급담론이 점차 민족담론으로 전환되어 갔다.[28] 〈대륙〉도 민족담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전환점에 위치했던 게 아닌가?

28) 張武軍, 『從階級話語到民族話語——抗戰與左翼文學話語轉型』, 中華書局, 2013年, 3~6면.

다른 한편, 가난한 하층민의 '생업'을 반복 강조한 것이 사실상 민족보다 앞선 생존권을 내세움으로써 식민지문제를 제쳐두고 계급문제를 볼 가능성을 제시한다. 즉, 가난한 하층민이 민족을 넘어 아래에서 위로 제국의 국가적 권력을 초극할 가능성이다. 국가적 권력과 거리를 두려는 민간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우리를 포위한 백성이나 노동자는 우리한테 법률이자 권력입니다."라면서 하층민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맥락에 있다.

이로 보건대 〈대륙〉에서 민족의 무화는 궁극적으로 작가의 계급적 시각 때문에 가능했다. 작가는 내선일체의 틀 속에서 민족관계를 검토한 게 아니라 계급문제와 맞물려 있는 민족 논의를 펼쳤다. 한설야에게 있어 민족이란 국제성을 지닌 민족이듯이 식민지문제 또한 계급문제와 동떨어져서 고려할 수 없다.

3. 정화, 죽음 기호의 등장, 그리고 자기부정

선행연구에서 이미 〈대륙〉에서 일본인의 변화에 주목한 바 있다. 그것에 대해 서경석은 "대륙의 힘" 때문이라고 매우 추상적으로 해석했고[29] 한설옥은 "농촌 개척사업"의 결과로 해석했다.[30] 그러나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소설에서 일본인만이 아니라 식민지인도 민족적 콤플렉스를 버리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무구'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두 가지 정화 과정에서 모두 죽음 기호가 등장한 것이 주목을 요한다.

일본인이 자민족중심주의를 제거하는 정화 과정은 유키코를 통해

29) 서경석, 「카프 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년 12월, 23~24면.
30) 韓雪玉, 앞의 글, 50면.

서 구체적으로 형상화된다. 유키코가 정화된 계기는 마리가 비록 오오야마 겐지의 민족적인 편견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구출해주는 것이다. 유키코는 그것을 일종의 "희생적인 마음"으로 읽고 거기에 투영된 "자신의 진심"을 발견하기에 이른다. '희생적인 마음'이라는 표현은 마리의 행동을 일종의 죽음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마리 자신의 표현과도 겹친다.

>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저도 물론 찬성할 수 없어요. 하지만 보다 높은 생각으로써, 비록 그렇지 못하더라도 피로써 적을 이겨 소중한 친구로 만드는 일은 종종 있지요.[31]

마리가 아버지를 설득하는 대목이다. 그녀는 만주 또는 만주인 위에 쇼비니즘적인 자세로 군림하는 일본인을 "원수", "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야기한다. 민족의식이 지워진 "보다 높은" 상태에서 일본인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강한 민족 자의식에 입각하여 "피로써", 다시 말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일본인들을 반성시키는 것이다.

마리가 "전의 감정을 완전히 씻어 버"려 민족적인 정서를 버린 것은 히로시의 치명상을 알게 된 이후다. 여기서 다시 죽음 기호의 등장을 발견할 수 있다. 사실은 죽음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정화가 가능하다는 논리는 유키코와 마리의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물론 사망자도 있기는 있지. 사업은 크든 작든 간에 그것에 걸맞은 희생이 수반되니까. 삶은 죽음에서 시작되고 빛은 어둠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꽤 오래되었는데 난 정말 죽음과 어둠보다 대륙의 삶과 빛을 분명하게 본 것 같네"
> (중략)
> "물론 계속 해야지. 하야시도 마리도 나도, 그리고 다른 사

31) 韓雪野, 〈大陸【14回】〉, 『國民新報』, 1939년 9월 3일, 13면.

람들도 똑같이 대륙의 불을 켜 줄 한 방울의 기름이라고 나는 생각해. 그래서 전사자의 묘지에 서 있다면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인식할 수 있고 남을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아. 바꿔 말하면, 인간의 묘지에 서서 자신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지. 내 기분도 아마 그런 거겠지……유키코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무튼 좋은 생각이니까 뭔가 같이 해 보자"32)

소설의 마지막에 거의 회복된 히로시가 하야시에게 다 나으면 가장 먼저 가 보고 싶은 곳이 마적 습격으로 죽은 사람들의 묘지라고 마음을 밝히는 대목이다. 하야시가 "대륙의 삶과 빛"을 "죽음" 또는 "희생"에서 찾는가 하면 히로시는 민족의 구분 없이 "대륙"으로 수렴되는 민족 무화 상태를 "전사자" 앞의 자기반성과 연결시킨다. 전사자 앞에서 자신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은 유키코가 마리의 "희생적인 마음"에 투영된 "자신의 진심"을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마리가 "인간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불행 앞에 있다 보니 기분이 묘하게 차분해졌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죽음은 자기반성을 불러일으키고 다시 정화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죽음은 정화——민족 무화라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죽음 기호의 등장은 작가 한설야의 정화 미학이 심각한 자기부정 위에 구축되었음을 말해준다. 1937년 초 『조선일보』에 발표된 〈朝鮮文學의 새 方向〉이라는 글에서 그는 '부정'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새삼스레 辯證法이나 엥겔스의 「보외알」의 例를 끄러올 거업시 이른바 「否定」은 아나키스트的 任意의 否定이나 任意의 抹殺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先行過程의 充分한 認識과 究明과 批判과 그리고 그 止揚으로서 오는 否定을 말하는 것이다。모든 事象은 이미 그 自體 中의 消極面을 스스로 否定하는 積極的인 要素를 가지고 잇는 것이니 그럼으로 先行過程의

32) 韓雪野, 〈大陸【17回】〉, 『國民新報』, 1939년 9월 24일, 15면.

眞實한 批判과 攝取는 곳 後行過程의 萌芽가 되는 것이다.[33]

한설야는 "그 自體 中의 消極面을 스스로 否定하는" 자기부정을 "積極的인 要素"로 평가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발전이 자기부정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그는 이런 논리를 문학 분야로 확대시킨다.

> 文學 傳統에 잇서서 보아도 그 變遷은 亦是 이러한 過程을 過程하는 것이니 그럼으로 文學이 今日의 否定으로부터 明日의 肯定을 가지지 못하고 다만 旣成 질서 안에서의 旣成 認識秩序에 向하는 內省的인 文學인 以上 그것은 文學의 退步를 意味하는 것이오 文學 傳統으로 보아서 主潮를 이룰 수 업는 것이며 따라서 後繼文學의 繼承者가 될 수 업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문학은 "內省的인 文學"으로 그치면 안 되고 "적어도 무엇을 求하야 懷疑的 態度라도 가"지고 "부정"까지 가야 "새로운 認識이 움트기 시작한"다고 한다. 드디어 그는 "現實否定의 文學"이야말로 "文學의 主潮"이자 "文學의 새 方向"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논의는 계급문학운동에 대한 그의 반성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대륙〉에서 한설야의 정화 미학은 역시 일제에 대한 비판으로 돌린다. 다음은 일본인의 성격 개조에 관한 대목이다.

> (a) "유키코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엔 대륙이 가장 고마운 것은 반드시 지리(地利)만이 아니다. 그것보다 나는 도리어 일본인의 성격 개조의 새로운 무대나 도장(道場)으로서의 대륙을 예찬하고 싶어. 예찬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열심히 살고 싶어. 시대는 틀림없이 새로운 성격을 요구해. 우리가 여기에 와서 다른 데보다 일본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게 되는데 역

33) 韓野, 〈朝鮮文學의 새 方向(四)〉, 『朝鮮日報』, 1937년 1월 8일.

시 대개조가 필요하거든. 너무나도 지나치게 좀스럽고 섬세해”

“그러네. 우물 안에 있다면 언제도 세상을 모르지. 우리 대학 때는 자네! 동창생들까지 우리보고 ‘만주꼴로’라고 이단시했었지——아니 심한 놈들은 이국인으로 취급했었지. 맹자님의 말씀을 빌려 쓰자면 남만격설지인으로 봤던 거야, 우리 만주에서 온 사람 말이야”

“자네, 지금이라도 도국 쇼비니스트들은 그러는 거지”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담당하는 신일본의 성격은 틀림없이 대륙적인 요소를 포함할 거야”

“그러네. 지금이 하나의 거대한 전형기임에 틀림없어.”[34]

(b) 자신도 남들도 어떤 차질로 구불구불 비틀비틀 더럽고 더러운 세상에 구속받는 좀스러운 인간에서 해방되어 인생의 전장에서 목전의 작은 이득에 눈멀지 않고 항상 최후의 대성을 지향하는 느긋한 인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분이었다.

이른바 무협담에서 볼 수 있는 ‘하라키리 일본인’의 성급함은 이미 끔찍하게 싫어졌다. 겉으로는 졌지만 결국은 이기고, 오늘은 불리하지만 내일은 유리한, 게다가 그것이 극히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 점에서도 더욱더 대륙이 고마웠다. 지금의 생각과 대륙과는 틀림없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었다. 대륙 없이는 지금 결코 이런 생각이 없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35]

(a)는 하야시와 히로시가 일본인의 성격 개조를 논의하는 대목이다. 대륙에 와서 일본인의 자기성찰은 “대개조”의 필요성, 즉 자기부정을 불러일으킨다. 주목할 만한 것은 “대개조”가 “도국 쇼비니스트들”의 민족차별에 대한 비판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륙적인 요소”도 포함하는 점이다. (b)는 히로시의 내면묘사인데 일본민족의 성격을 부정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느긋한 인간”을 제시하면서 대륙

34) 韓雪野, 위와 같음, 13면.
35) 韓雪野, 위와 같음, 14면.

적인 성격을 인정해준다. 결국 일본과 대륙과의 접목은 일본민족의 자기부정과 자기숙청을 요청하는데 심각한 자기부정은 일종의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청나라가 비록 힘으로 한족을 정복했지만 끝내 망하여 한족과 같이 "중화"가 된다는 고토 사장의 말과 연관지어 읽으면 이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민족의 무화가 죽음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자기부정과 직결되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한설야의 이상에는 심각한 자기부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대륙〉의 해체적인 구성을 초래한다.

4. 스스로 해체된 이상향

〈대륙〉의 해체적인 구성은 이민공동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자유이민촌은 결코 이상향이 아니다. 우선 민족관계의 실상을 살펴보겠다.

1) 중국인과 일본인이 부재한 '민족연합체'

자유이민촌은 비록 불투명한 민족적 경계선과 복합적인 민족성을 지향하지만, 실상 중국인과 일본인이 부재한다. 제6-7회에서 그 결성에 대한 묘사에 따르면, 대도회(大刀會), 구국군(救國軍, 反滿軍)과 합류한 '마적' 및 위만주국의 공안부대와 육군부대, 일본영사관 경찰, 일본 보병부대의 사이에서 벌어진 격전은 중국인과 조선인의 거주지까지 퍼진다. 그러므로 현지의 중국인은 대부분 불에 타죽고 나머지도 거의 다 도망친다. 조선인 거주민 또한 여기저기로 떠돌아다니게 되는데 그 중 조선인민회에 수용된 피난민이 이민촌의 주된 구성원이 된다. 사실상 처음부터 하야시는 일손을 조선인 농민으로

상정한다. 뿐만 아니라 이민촌에서 실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은 조선인 이성천과 조선적인 성격을 다분히 띤 하야시뿐이고 일본인 히로시는 자금조달을 비롯한 섭외사무만 담당하고 중국인 조씨 부녀의 도움이나 극소수의 위만주국 군인의 보호는 이민촌의 변두리에 머무른다. 결국 이민촌 안에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지나 동요(支那子唄)"를 제외하고는 중국인과 일본인의 실제적인 등장을 확인할 수 없다.

한중일 사이의 심각한 민족적인 모순은 소설 전체를 관통한다. 첫 장면에 나타난 '조선호'는 '처녀지' 위에 작용하고 있는 민족 간의 폭력을 집중적으로 형상화한다. '조선호'는 전조선의 헌금으로 구입한 간도파견군 항공대의 육군기인데 대륙의 상공에 "검은 점(黒い一點)"을 그리며 '처녀지'의 무구함을 더럽힌다. 하야시의 '피스톨' 또한 마찬가지로 폭력적 부정적 민족관계를 상징한다. '마적'의 습격전과 복수전이 소설 전체에 걸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면 중국인은 모든 계층에 걸쳐 '마적'과 연계되어 있어 일본군과 조선인의 대척점에 서 있다. 일본군과 조선인 거주민의 제휴도 극히 느슨하다. 조선인 피난민은 "죽어도 좋으니 고국에 돌아가서 죽고 싶다고" 하면서 일제의 이민 정책에 협력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인을 믿지 못한다. 마적의 습격을 앞두고 그들은 일본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피난소를 찾는다. 히로시까지 쓰러지고 하야시가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무렵에 그들은 무관심한 태도로 큰소리만 친다. 격렬한 전투를 그리면서 작가가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조선인의 한담을 대비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조선인의 비협력을 암시한다. 반면에 야학에 관한 장면을 통해 조선인 거주민을 주시하는 일본인의 우월적인 시선을 확인할 수 있고 '권총'과 협박에 대한 동원은 폭력적인 한일관계의 실상을 환원한다.

종합해 보면 소설에서의 '자유이민촌'은 중국인과 일본인이 부재하

는 조선이민촌이며 대륙에서 한일 간의 느슨한 제휴, 그리고 일본군의 공범이 된 조선인과 중국인의 대립을 그대로 투영된다. 이는 작가가 겉으로 내세운 민족의 경계선이 지워진 이상향과 매우 대조적이다. 이런 균열은 '오족협화' 슬로건과 현실 사이의 거리를 환원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필자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적인 형태를 내세우다가 다시 그것을 손수 깨뜨리는 자기부정의 과정이다.

2) 민족을 초극하지 못한 계급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대륙〉에서 한설야는 민족문제를 계급문제와 함께 검토하면서 국경과 민족을 넘는다는 계급의 보편성에 의해 제국의 헤게모니를 초극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런 노력이 결국 국경과 민족을 넘은 제국의 헤게모니에 수렴된 과정을 작가가 보여준 것이 흥미롭다.

가난한 하층민이 국경을 넘어 이민의 자리에 서는 순간부터 자의든 타의든 간에 보다 더 강력한 국제적인 역량——제국의 헤게모니에 부딪치게 된다. 위만주국은 그 다민족적인 구성으로 인해 제국의 헤게모니가 이미 민족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장소가 된다. 이민공동체가 비록 의식적으로 국가적 권력과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국가적 권력에서 이탈한 '마적'의 대척점에 서는 반면에 일본군, 위만주국의 군대, 일본영사관의 경찰 등 다양한 형태로 구체화된 국가적 권력과 협력하게 된다. 이민촌은 처음부터 마적에 대비하기 위해 위만주국 군대의 보호를 받는다. 오오야마 부자가 마적에게 붙잡혀 간 후 하야시는 "아무래도 역시 군대의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고 "뒷줄 좀 보여주"기 위해 일본과 위만주국의 군대 및 경찰을 동원한다. 그 결과 하야시도 하층민의 '보호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며 하층민을 타자화한 한편, 폭력에 의해 그들을 통제하기에 이른다.[36]

특히 흥미로운 점은 하층민의 일부까지 일본영사관으로부터 총기를 배포 받아 일본군의 보충적인 역량으로 수렴된 사실이다. 국가적 권력과 거리를 두기는커녕 도리어 국경을 넘은 제국에 의해 더 강력하게 통제되고 제국으로 깊이 흡수된 패러독스이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같은 회로를 보인다. 하야시는 "국가적 권력까지 이용해 얼마든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일본의 "큰 재벌이나 투기자"를 비판하면서 "완전히 평민적이고 어디까지나 공존공영을 원칙으로 한" 사업을 시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위만주국 기구로부터 정책적인 지원을, 구세대 식민주의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그리고 일본군으로부터 군사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하면 이민촌의 '자유 개척 사업'도 제국의 독점적인 식민지 경제 체제의 일부이고 계급문제는 어디까지나 민족문제에 구속받아 식민지문제로 흡수된다. 국제적인 시야에 의해 민족을 초극하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고 출발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식민지문제의 구렁으로 깊이 빠져 버린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준 것은 한설야의 투철한 관찰을 말해주는 한편, 식민지문제, 계급문제를 둘러싼 그의 현실적 비판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시사한다.

5. 나오며

〈대륙〉은 민족의 경계선이 무너진 세계를 이상향으로 제시하다가

36) "無智の者の恐怖といふものは、實に測り知れないものであつた。餘り惜くもなさうな命が、何んでそんなに恐いのだらうと思ふと、林は寧ろ笑ひたくもなるのだつたが、それは勿論獨善的な考へであることを知らないのではなかつた。
自分は、矢張りどんな場合でも、彼等の護衛者で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つた。彼は、護衛團をして、彼等避難民を一歩たりとも表に出さないやうに監視させた。"韓雪野, 〈大陸【15回】〉, 『國民新報』, 1939년 9월 10일, 13면.

다시 이상향의 파탄을 일일이 지적한다. 이런 해체적 구성이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싶다. 해체적 구성은 특히 1943년 중반 이후 식민지 조선 소설의 전반적인 특징이 되었지만,[37] 1939년에는 아직 그리 일반적이지 않았다. 이는 작가 한설야의 자기부정의 미학과 직결되어 있었는데 그 결과 소설에서의 정화는 죽음의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선행연구자들은 대체로 〈대륙〉을 한설야가 계급문학 창작을 포기한 이후의 작품으로 상정하고 그 전제 아래 '협력'과 '저항'이라는 지평에서 이 소설을 검토해 왔다. 이와 달리 필자는 이 소설에서의 민족 담론이 작가의 계급적 시각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계급적 시각 때문에 한설야의 민족 논의는 다른 조선 작가들과 달리 한일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일종의 국제성을 보였다. 내선일체의 틀 속에서 대등한 한일관계를 주장한 게 아니라 민족을 무화시킴으로써 아예 내선일체의 틀까지 깨뜨렸다고 할 수 있다. 내선일체에 대한 그의 부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대륙〉은 식민지 작가의 가장 절실한 현실적인 고민을 여실하게 드러낸 작품이지 친일협력의 작품과 거리가 멀다.

내선일체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입장을 감안하면 1940년대의 〈피(血)〉(『국민문학』, 1942.1)나 〈그림자(影)〉(『국민문학』, 1942.12)에서 이민족 간의 연애가 실패로 마무리된 것은 필연적이었다. 〈대륙〉의 시점보다 사상적인 변화를 거친 결과가 아니라 같은 문제를 다른 측면에서 접근한 결과였다. 이에 대한 고찰은 다음의 과제로 남겨둔다.

37) 劉惠瑩, 앞의 글, 55면.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韓雪野, <大陸>, 『國民新報』, 1939년 6월 4일~9월 24일.

韓雪野, <舞踊 使節 崔承喜에게 보내는 書>, 『四海公論』, 1938.7.

韓雪野, <作者の言葉>, 『國民新報』, 1939년 5월 28일.

韓野, <朝鮮文學의 새 方向(四)>, 『朝鮮日報』, 1937년 1월 8일.

2. 단행본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윤대석, 『식민지 국민문학론』, 역락, 2006.

정종현, 『동양론과 식민지 조선문학』, 창비, 2011.

한석정, 노기식 편, 『만주, 동아시아 융합의 공간』, 소명출판, 2008.

馬平安, 『近代東北移民硏究』, 齊魯書社, 2009.

王俊彥, 『白俄中國大逃亡紀實』, 中國文史出版社, 2002.

依田熹家 著, 卞立强 等 譯, 『日本帝國主義的本質及其對中國的侵略』, 中國國際廣播出版社, 1993.

張武軍, 『從階級話語到民族話語——抗戰與左翼文學話語轉型』, 中華書局, 2013.

3. 논문

배주영, 「1930년대 만주를 통해 본 식민지 지식인의 욕망과 정체성」, 『韓國學報』 제29권 제3호, 일지사, 2003년, 35~57면.

서경석, 「만주국 기행문학 연구」, 『어문학』 제86호, 한국어문학회, 2004년 12월, 341~360면.

서경석, 「카프 작가의 일본어 소설 연구」, 『우리말글』 제29집, 우리말글학회, 2003년 12월, 373~397면.

유필규, 「滿洲國시기 韓人의 강제이주와 集團部落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년, 1~225면.

劉惠瑩, 「일제말기 한국 국민문학과 타이완 황민문학 비교 연구—중·단편소설

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년 8월, 1～340면.

朴仁哲, 「朝鮮人'滿州'移民のライフヒストリー（生活史）に関する研究－移民体験者たちへのインタビューを手掛かりに」, 北海道大學博士學位論文, 2015年, 1～147면.

山畑翔平, 「昭和戰中期における滿洲移民奬勵施策の一考察――移民宣伝誌を通じてみた滿洲イメージとその変容」, 『政治學研究』 41号, 2009年 5月, 137～162면.

淺田喬二, 「拓務省の滿州農業移民計畫（試驗移民期）」, 『駒澤大學經濟學部研究紀要』32卷 , 1974年 3月, 87～155면.

房建昌, 「僞滿洲國時期的白俄」, 『黑龍江社會科學』, 1997年 12月, 66～70면.

沈海濤·衣保中·王胜今, 「論日本對中國東北移民的侵略本質」,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第54卷 第3期, 2014年 5月, 5～12면.

鄒桂芹, 「"九一八"事變後日本對中國東北的移民侵略」, 『長春教育學院學報』 第19卷 第2期, 2003年 6月, 28～31면.

韓雪玉, 「僞滿洲國時期中韓作品中的東北形象比較」, 中央民族大學 碩士學位論文, 2016年, 1～58면.

<Abstract>

Serious Self-negation
—Han, Seol-Ya's Purification Aesthetics through "The Continent"—

LIU HUIYING

Han, Seol-Ya's long novel "The Continent" was created under the background of Imperial Japan was pushing emigration to Manchuria and Manchurian reclamation forward. In this novel about Japanese and Korean in Manchuria, Han, Seol-Ya offered a positive image which can be named 'spotless', and gave an ideal blueprint for Manchuria. In a word, he showed a world in which there wasn't any national consciousness or boundaries of race. Though, there must be death in his purification. Therefore, we can know that there was serious self-negation in Han, Seol-Ya's ideal. Because of serious self-negation, "The Continent" showed a deconstructive structure. Han, Seol-Ya's purification aesthetics with serious self-negation was a result of his criticism on colonial Korea around the year 1939.

Key words: Han, Seol-Ya, "The Continent", purification, emigration, self-negation

투 고 일 : 2017년 5월 9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